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10장(전능왕 오셔서).....
※ 교독문	3(시편4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88장(내 진정 사모하는).....
예배기도	1부 원혜경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사명”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같이
* 평신도사역자와 함께 세우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태복음 5:38-42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악을 이기는 사랑의 법” 최세열목사
기도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220장(사랑하는 주님앞에)
봉헌	(구제사역팀).....
성찬식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시백기도회(월-금)	
인도 / 담임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김성희집사	본문 / 베드로전서 2:4-10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딤후2:1-15	다니엘서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베드로묵회7프레임 / 3.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회복의 예수목회	말씀 / 최세열목사	“공중 예배를 드리는 자세”	금요기도회	2월 첫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2월 7일)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훈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없음
	헌금위원	1월	이종봉 김혜경 함경숙 김봉순	1부	말은이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2부	정정희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리아 다음주	없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구제사역팀	다음주	중보기도팀	

악을 이기는 사랑의 법 / 마태복음5:38-42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공동체가 제시하는 도리와 규범을 지킬 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보다 개인의 성향이 강조되는 현대사회 흐름 속에서는 사회윤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종교, 사회윤리의 규범이 지니는 한계를 보셨기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칙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마태5-7장)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 윤리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의 도리와 규범입니다.

1. 동해보상법의 의미를 분명히 알라고 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의 내용인 동해보상법(동일한 대가로 보상하라는 법)은 일종의 사회법과 같습니다.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는 법입니다.

39-42절에 나오는 사랑의 법은 일반적 도덕규범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님의 법입니다.

동해보상법은 가해자를 향한 법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 그대로 적용하고 피해자의 보복으로 적용한다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법의 본래정신을 회복시키는 법으로 사랑의 법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란 피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동해보상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사랑의 법을 따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2. 악에 대하여 너그러움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법은 한 마디로 말하면 너그러움의 법입니다.

첫째 뺨을 맞았을 때입니다.

손등으로 뺨을 맞았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린양으로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참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사 53: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욕과 수치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송사를 당했을 때입니다.

속옷을 위한 송사는 정말 사소한 일로 트집과 역지를 부리는 치사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물을 양보했던 이삭처럼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창세기26장).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축복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봉사를 강요받았을 때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워 오리를 가도록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봉사를 강요받은 경우입니다. 이에 주님은 오리를 더 가중으로서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과 자존심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봉사를 강요받을 때 역지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자주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의 법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법을 받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현절 셋째 주(1월 26일)

제 5 과 모든 병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마8:14-17절)

(함께 읽을 말씀 : 시편41편 1-4절)

말씀묵상

1.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원이 있었지만(참고-막 5:26, 눅 8:43), 일반인이 의술의 혜택을 받는 일은 매우 드물고 예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배가 고파고, 각종 질병에 시달렸고, 게다가 정치적인 폭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볼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막 8:1-3).

2.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쉽게 기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실제로 고쳐 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거나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어쩌다 불가사의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자를 고쳐 주신 일을 뻔다면 도무지 예수님의 활동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는 물론 “병 든 자들을 다”(마 8:16)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기적을 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병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을 깊고 명확하게 봅시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사랑과 연민'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이 나옵니다(마9:36,14:14, 15:32-18:33, 20:34 등).

3. 오늘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마8:16).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구별하거나 선별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병의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만 보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만일 예수님이 병자들 개인의 잘못을 따졌다면 분명히 선별해서 병자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개인의 부주의나 나쁜 습관으로 생긴 병도 얼마든지 있고, 그럴 때 얼마든지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되, 차별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불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 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대"(시 41:3).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2. 명절 가정예배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3. 신년축복심방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심방에 참여하지 못한 가정은 구역장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 주일에는 11시에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는 구역형편에 따라 모이시기 바랍니다. 설연휴기간 중에 새벽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1월 30-2월1일)
5. 교우소식 / 결혼
 - * 박홍만장로(정정희권사)님의 딸 윤희양의 결혼예배가 2.8(토) 낮12시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있습니다.
 - * 김옥길집사(여순애권사)님의 딸 유진양의 결혼예식이 2.8(토) 오후2시 갤럭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6. 노회소식 : 주민교회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니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어느 해 날이 몹시도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수기로 물을 퍼서 자기 눈에 어느 정도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가 아침 일찍 자기 눈에 가보니 물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웃 논 임자가 논둑을 터놓아서 말도 없이 그쪽 논으로 물을 빼내 가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는 몹시도 화가 났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모른 척 하고 참았습니다. 그는 또 다시금 양수기를 동원해서 자기 눈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눈에 나가보았더니, 또 물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에 이웃의 논 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웃 논 임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 임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워치만 니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틀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이웃 사람이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에 앞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일도 아닌데 어찌 저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일의 옳고 그름만을 따져서 꼭 정당한 일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이냐?"

그러한 음성을 듣고서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양수기를 준비해서 먼저 이웃 논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물을 퍼 올려서 이웃 논에 충분히 채워 주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양수기를 자기 논으로 옮겨서 자기 논에도 물을 채웠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웃 논 임자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웃 논 임자와 그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4호 2014.1.26.

말은 일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오늘 나의 말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실함을 허락하시며,

비록 나를 지켜보고 칭찬하거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자기 훈련을 쌓게 하옵소서.

자신을 높이는 만큼이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나와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일하는 자에게
친절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므로
저들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감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윌리엄 바클레이의 묵상과 기도 중에서 -

향기로온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양석임 박경자 김선영 이현옥 지국남 박희순 김애자 김인순 박지영 윤종원 서영자 강진숙 김홍영 김숙희 지대근 최임춘 노대성 정재영 김귀례 김범진 선우명환 장영분 김영란B
- 감사헌금 : 정혜진 김옥길 여순애 박홍만 정정희 이종춘 심문자 김동현 김병국 김기희 방옥남 무명3 (일천번제)김동현 (생일) 조성순 김홍영 (심 방) 김혜경 김애자 김상례 윤승호 최경선 강진숙 김연학 김장숙 노대성 정재영 강항구 류종란 조은미 (신년) 노재의 김영란
- 건축헌금 : 양석임 함경숙 윤종원 김애자 이종춘 심문자 사라희 김옥길 여순애 김선자 김근중 주종임 김귀례 김범진 선우명환
- 비전씨앗 : 배영인 황은상 박주환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양석임	3	9,000	10	이현옥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8	9,000	80	한국회
2	정정희	김한순	최승연	4	20,000		신혜영	8	김순남	오복실	차소라	10	28,000	40	김장숙
3	이춘호	함경숙	이종봉	3	15,000	1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김인순	3	11,000	100	한미경
4	김기희	최경선	김춘자	4	19,000	66	주종임	10	장영분	노순영	장영분	4	16,000	50	박세일
5	이문순	원혜경	이문순	3	15,000		방옥남	계				53	177,000	670	
6	류종란	김애자	정재영	11	35,000	224	안해숙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 김영란 반주: 안진영